‘힙’해진 불교, 부산 찾는다

8월 6~9일, 부산 벡스코서
‘한마음선원’ 등 사찰 대거 참여
특색 있는 포교 프로그램 ‘눈길’
통로 3m 확보해 쾌적한 관람
엄선된 355개 부스로 ‘내실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2026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다. 사진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행사장 내 ‘행운의 전당’에서 관람객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마인드디자인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空)’이 신나는 ‘공놀이’로 변신한다. 전통 불교문화와 현대 라이프스타일이 결합된 ‘2026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라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주제를 내걸었다. 다소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불교의 공사상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공놀이’에 빗대어 대중들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풀어낸 참여형 불교문화 축제다.

사찰들 적극 참여로 ‘내실화’

올해 박람회는 외형적 확장보다는 ‘관람객의 편의’와 ‘전시의 내실화’에 집중했다. 앞서 타 지역 박람회에서 구름 인파가 몰리며 발생했던 관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벡스코 전시장의 부스 이격 거리를 3m로 대폭 넓혔다. 이를 위해 참가 신청 업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355개의 부스만 엄선해 배치, 예상 관람객 7만명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은 크게 △명상 문화전 △명상 공예전 △사찰음식전 △명상 예술전 등으로 구성된다. 관람객들은 향, 초, 목공예품 등 전통 공예부터 승복과 천연염색, 현대 건축과 플랜테리어, 녹차와 보이차까지 불교문화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부산 박람회만의 가장 큰 특징은 포교를 향한 지역 사찰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대표적으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관람객이 지닌 밝고 지혜로운 근본 마음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40분 체험 프로그램 ‘마음굴림’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애니메이션과 쇼츠 영상 감상을 통해 고민을 돌아보고, 진행자와의 차분한 대화 시간을 거쳐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AI 만화 만들기’로 체험을 마무리하게 된다.

여기에 불상과 불화 등 전통 불교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총망라한 예술전과 더불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힙(Hip)한 불교’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불교 굿즈 특별전’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코인으로 공 뽑자” 오감체험 프로그램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기발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이번 박람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박람회장에서는 전용 주화인 ‘불박 코인’을 활용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불박 코인은 박람회장 입장 시 팔찌와 함께 1인 1개씩 지급되며, 현장 포토(SNS) 이벤트 참여, 5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 인증 등을 통해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관람객은 코인을 이용해 기계에서 공을 뽑는 ‘공 뽑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뽑은 공 안에는 스님과의 문답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공 미션지’, 비어있음을 뜻하는 ‘공(空)’을 뒤집으면 ‘운(運)’이 되는 메시지 카드 등이 담겨 재미를 더한다.

또 ‘행운공’ 당첨권을 뽑은 관람객은 행사장 내 ‘행운의 전당’에 전시된 특별한 공으로 교환할 수 있다. 행운의 전당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프로야구 염경엽 감독 등 유명 인사들이 직접 작성한 행운의 문구가 담긴 공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신의 서원을 빈 공에 적어 행사장 내에 마련된 농구 골대 형태의 수거함에 던져 넣는 ‘공 수거(서원 성취)’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중의 염원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는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박람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사전 등록 안내는 2026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usanb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한 인도대사 “불교 교류 협력”

7월 7일, 김해 장유사 참배
“가야불교 매개로 우호 증진”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가 7월 7일 가야불교의 발상지로 전해지는 김해 장유사(주지 해공 스님)를 참배하고 한국과 인도의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장유사는 2000년 전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건너온 허왕후의 오빠로 전해지는 장유 화상을 모신 사찰로, 가야불교의 발상지이자 한국과 인도의 오랜 역사·문화적 인연을 상징하는 도량이다.

고랑랄 다스 대사는 장유 화상 진영과 사리탑을 참배한 뒤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장유사 주지이자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인 해공 스님과 전 이사장 도명 스님(여여선원), 정영두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고랑랄 다스 대사는 “김해와 인도는 허왕후를 통해 2000년 전부터 이어진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를 매개로 형성된 양국의 역사적 관계가 앞으로 문화와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지 해공 스님은 “이번 방문이 가야불교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국과 인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관정 대사 19주기 다례재 봉행

대한불교정토선종, 7월 12일
“정토수행과 염불정진 매진”



대한불교정토선종(총무원장 등정 스님)이 7월 12일 총무원인 경남 고성 서방사 극락전에서 관정 대사 19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스님의 정토사상과 염불수행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관정 대사는 중국 근대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조동종 제48대 전법제자이며, 문화혁명 시기 관세음보살의 인도로 극락세계를 체험하고 정토선 수행법을 널리 전한 고승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한국 순회법회를 통해 서방사와 인연을 맺고 정토선 전법의 토대를 마련했다.

총무원장 등정 스님은 법어에서 “관정 대사는 극락정토를 직접 체험하고 정토삼부경의 가르침이 실제임을 몸소 증언한 수행자”라고 추모했다.

이어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삶을 바르게 이끄는 가장 쉽고 확실한 수행법”이라며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품고 정토수행과 염불정진에 힘쓴다면 자신과 이웃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가 스님, 부산 동명불원 원장 취임

7월 14일, 대웅전서 취임법회
신행 · 불교대학 활성화 추진
“마음치유 중심 도량 만들 것”



“꽃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꽃이 되어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공양을 올립시다.”

자비명상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해 온 마가 스님이 (재)부산동명불원의 새로운 원장으로 취임하며 사부대중에게 ‘스스로 꽃이 되는 삶’을 당부했다.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은 7월 14일 대웅전에서 ‘신임 원장 마가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시영 동명불원 이사장, 박희채 상임이사, 김경조 전 이사장, 김성규·강석진·안수근·이욱태 이사 등 재단 임원진과 성재곤 신도회장, 박재범 남구청장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해 마가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동명불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신임 원장 마가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참된 공양의 마음과 자세를 당부했다. 스님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찡그린 얼굴이나 험한 말을 한다면 오던 복도 도망가 버린다”며 “제가 이곳에서 할 일은 우리 불자들 각자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동명불원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소통과 치유’를 제시했다. 스님은 “신도님들과 더 가까이서 상담하고 차도 마시며 어려운 부분들을 다독여 주고 싶다”며 “기존의 기도는 이어가되 불교대학을 확장해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고, 명상을 통해 자기 치유를 돕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남구 관내에 있는 유엔평화공원이나 이기대공원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해,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4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 공모

학술 · 봉사 · 포교…10월 30일까지
“인재양성 · 자비희생 정신 계승”

영축총림 통도사 산하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 스님)이 제14회 영축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영축문화대상은 통도사를 중흥시킨 구하당 천보 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인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자비희생 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불교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공모 분야는 △학술문화상 △봉사실천상 △포교원력상 등 3개 부문이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쌓은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는 국적과 학력, 직업, 종교에 관계 없이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면 추천받을 수 있다. 추천권자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대표, 대학 학과장, 후원회 및 봉사단체 회장 등이며, 접수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11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 상패와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총 상금은 6000만원이다.

이사장 현문 스님은 “구하당 천보 대종사의 애국정신과 인재양성 원력, 그리고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자비희생 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영축문화대상의 취지”라며 “불교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연등회, 소원등 기금 이주민에 회향

7월 12일, ‘이주민과 함께’ 전달
1000만 상당 필수 의약품 후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부산연등회 기간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소원등 기금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건강을 후원하는 자비나눔으로 회향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7월 12일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사무실에서 ‘2570부산연등회 자비나눔 전달식’을 열고 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혜광·종민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노준기 국장 및 조병준 이사장, 노동현 이사, 정지숙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2570부산연등회 부산연등문화제 기간 시민들이 참여한 ‘소원등 달기’ 체험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준비됐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원이 담긴 소원등이 의료 취약계층인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전달된 의약품과 의료기구는 이주민 무료진료소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석산 스님은 “부산연등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원등 달기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매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향하고 있다”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시민들의 작은 정성이 이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6년 설립된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부산·경남 지역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등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찰음식 만들며 ‘생명존중’ 되새겨

선재동자전승단, 7월 12일
꽃인절미 · 과일찹쌀떡 체험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이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며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제5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7월 12일 선문화관 내 사찰음식연구소에서 ‘사찰음식 디저트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승단 소속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동참했으며, 범어사 사찰음식연구소 소속 교수진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찰 전통 디저트인 꽃인절미와 과일찹쌀떡을 손수 빚으며 음식에 깃든 정성과 불살생의 의미를 익혔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한 조를 이뤄 재료를 손질하고 떡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등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가 매년 운영 중인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올해 3월 범어사에서 제5기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다가오는 가을 팔관회 수계식을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회향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정구가족센터 ‘새 단장’

7월 14일, 공간 개선 개소식
“돌봄공동체 거점 기대”



부산 금정구가족센터(센터장 김수현·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가 7월 14일 센터 2층 교육실에서 ‘2층 공간 개선 기념 개소식’을 열고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도약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일현 금정구청장,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장 및 양달막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 김득성 자문교수 등 내빈과 센터 이용자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김수현 금정구가족센터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다자람터’와 ‘소통 공간인 홀’이 금정구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돌봄 공동체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